

현 재 우리 나라 어항 개발실태와 금후 우리 나라 어촌·수산업에 미칠 국내외적 여건변화를 고려할 때 앞으로 어항은 다기능 혹은 종합적 기능을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것은 어항이 어업 지원 기능 외에 어업외적 기능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개발함을 뜻한다 하겠다. 이러한 어항종합개발 방식은 앞으로의 어항이 어업지원기능만으로는 그 역할을 다할 수 없다는 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즉 어항은 어장과 어촌의 결절지로서 생산에 대한 지원 외에 어촌 지역 주민들의 생활 근거지가 된다는 점에서 앞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어야 하며, 특히 급증하는 국민들의 해양 레크레이션 수요가 어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도 어항이 종합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

4, 21세기를 향한 어항 개발방향

**복합도시형과 광역 정주권형으로
모델어항 우선 개발 시범
정부조직 확충·관리 전담기구도**

그러면 앞으로 어항을 종합적으로 개발해 나갈 때 그 개발 목표는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가? 어항의 기능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산업이 매력있는 산업으로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기능 강화에 어항 개발의 제1목표가 두어져야 한다.

또한 어항은 어촌 지역에 있어 생활 중심지로서 풍요로운 생활 공간의 조성 역시 어

항 개발의 중요한 목표가 되며, 반면 도시 지역 주민들에게는 휴식·휴양 공간이기도 하므로 이러한 분야에 대한 기능 강화도 어항 개발의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필요성과 목표 아래 어항을 종합적으로 개발해 나갈 때 있어서 그 방향은 어항의 주요 기능별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우선 어업 활동 지원면에 있어서는 다음

과 같은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어선의 대형화에 적합한 어항을 개발해 나가야 한다.

앞으로 절대적인 어선 척수는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개별 어선 규모는 오히려 대형화 될 것이므로 특히 선착장 등 기본 시설과 수송 시설, 항행 보조 시설, 어선·어구 보전 시설, 보급 시설 및 수산물 처리 가공 시설 등 기능 시설도 이러한 변화를 감안하여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환경 보전을 지향한 어항 개발이 필요하다.

어항 구역(수역)에서의 환경 보전은 수산 생물에 대해 양호한 서식·산란 환경을 제공할 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 대해서는 쾌적한 휴식·휴양 공간의 제공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고려한 구조를 갖추어 나가야 할 것으로 예를 들면 유통 시설, 가공 공장은 물론 어항 구역(육역)에 입지할 각종 기능 시설에 폐수 정화 시설을 갖추도록 한다든가 외곽시설에 있어 해수 유통이 가능하도록 설계한다든가 하는 것이 그것이다.

셋째, 유통·가공시설을 확충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앞으로 수산업에 있어 하나의 중요한 변화는 양적 생산 증대보다 생산된 어획물의 부가가치 제고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어항 구역에 유통·가공 시설 확충과 함께 신속한 양륙을 위한 각종 유통 장비의 보강, 다확성 어류의 고도 처리 시설 및 소비자 기호에 부응한 새로운 해양 식품, 개발 시설의 확충, 원료·제품의 저장 및 출하 시스템 개발, 각종 정보수집과 제공 및 그 분석연구를 담당하는 종합 정보 센터를 설치하고 터미널, 택배센터 등 유통 센터의 정비 등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 될 것이다.

넷째, 자원 관리형 어업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친어사육 수면·중간 육성 수면 등을 가지는 어항 박지와 증식 기능을 가지는 방파제·호안 등을 정비하고, 종묘 생산 시설·신재배 생물 연구·어업 경제 연구·기자재 개발 연구 등 자원 관리형 어업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을 확충하며, 오염을 야기시키지 않는 사료 개발·자동 급이 시스템 개발 및 어장 청소·관리 시

설의 정비 등 양식 어업의 생력화와 해수 환경 보전을 위한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

다음 앞으로의 어항은 어촌 개발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어촌지역을 도시에 대한 과도한 인구 집중을 예방하고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거점 지역으로 개발해 나가고, 지역 주민들에게는 지역 특성에 보다 적합하면서 질 높은 생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하며, 소득 증대와 여가 시간 증대와 같은 국민생활패턴의 변화에 부응하여 매력적이고 쾌적한 휴식·휴양공간으로 개발해 나가야 한다.

이상과 같은 어촌 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앞으로의 어항은 복합 도시형 어항과 광역 어촌 정주권형 어항으로 구분하여 개발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복합도시형 어항은 수산업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배후지역이 넓으며 어느 정도의 기반 시설 및 인구 규모를 갖추고 있는 도시 근교형 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개발모형으로는 우선 수산

물 가공 단지, 수산 기술 연구 센터, 수산물 유통 센터 (직판 센터, 트럭 터미널, 택배 센터) 등을 확충하고 어장·수산물 유통·수산물 소비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유통 업자나 생산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지역 종합 정보 센터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어항 주변의 노후화된 기존 건물들을 정비하여 재개발부지를 창출하고 공원·쇼핑센터·이벤트 광장 등을 입지시켜 어항 워트 프론트 활용을 극대화 하고, 어항과 연결된 장소에 각종 관광 및 위락 시설을 설치하며, 어항 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종합 어항 관리 센터를 배치할 필요가 있다.

둘째, 광역 어촌 정주권형 어항은 연안에 인근해 있는 소규모 어촌 지역들을 하나의 생활권역으로 묶어 각 어촌별로 지역 특성에 적합한 생산 및 생활 기본 시설들을 정비하고 이것을 기능별로 네트워크 함으로써 상호 보완성을 높여 광역 생활권으로 기능토록 하는 개발 모형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권역내 어촌 지역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교

통·통신수단의 확충이며, 공동 생산 시설 및 생활 시설을 합리적으로 배치하는 동시에 전원형 관광시설과 소규모 특산물 판매센터, 수산물 식당가 등의 운영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어촌 지역의 환경 보전을 위해서도 어항의 기능이 강화될 필요가 있는데, 어항 주변에 녹지 시설을 조성한다든가 생산물 처리 과정에서 나오는 폐기물 및 생활 하수 등을 처리하는 시설을 어항 구역 내에 설치함으로써 어촌 지역 환경 보전을 위한 어항의 역할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어촌지의 휴식·휴양 공간화에 대해서도 어항의 역할이 증대되어야 할 것인데, 최근 점차 다양화하는 여가 패턴(기계장치형 레크레이션, 고급 이미지형 레크레이션 등)에 대응하여 어항을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마린러시 시설·어패류 양식장 및 독특한 지역 해양 문화를 결합한 관광 문화 지역의 조성을 통해 지역 활성화를 지향하는 지역활성화형, 둘째, 전천후형 이벤트지대·수족관·폴딩·각종 스포츠 시설·수산연구소 등 관광과 쇼핑, 이벤

트를 위한 집단시설을 조성하는 집단 시설 지구형, 셋째, 해양목장을 주축으로 하여 요트하버·해수욕장 및 다양한 해양스포츠 시설을 구비하여 어항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해양목장화 등 지역특성에 따라 다양한 시설과 기능을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21세기를 향한 어항 개발 방향을 개략적으로 살펴 보았으나,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조치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즉 앞으로 어항을 개발함에 있어 어업 생산 정책은 물론 유통·가공 정책, 관광 및 기타 지역 개발 정책과의 연계 하에 추진하되 단기적으로는 기존 지정항의 조기 완공을, 장기적으로는 전국 어항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 결과를 토대로 다기능 어항지정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현시점에서 다기능 어항에 대한 개발 경험이 없으므로 해역별로 모델어항을 우선 개발하고, 이러한 어항 개발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의 관련 조직을 확충함과 동시에 어항 관리 업무를 담당할 전담 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 ㉠

〈漁港漁村開發研究所 제공〉